

지역 메아리

금산면, 유관기관·사회단체장 회의

김제시 금산면(면장 김민환)은 지난 28일 면사무소 면장실에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이하 기관단체장)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기관단체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11회 김제 모악 산속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악산만이 가진 콘텐츠를 적극 활용, 지역주민들이 축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기관단체장들은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 의견을 개진할 것을 다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녹색쉼터 '명상숲' 조성

김제시(시장권한대행 이후천)는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이 녹색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2개 학교(청하중학교, 용동초등학교)에 1억2천만 원을 투입해 '명상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명상숲 조성사업 신청을 위한 공고를 실시하여 총 4개 학교에서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5명의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2개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명상숲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상숲 조성 및 관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제시는 명상숲 조성 대상지로 선정된 청하중·용동초교에 다양한 수준의 수목을 식재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산책로·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적절히 배치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보건소, 의료기관 합동 점검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국민안전재단 기간을 맞이하여 지난 28일 도청 간부공무원과 함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김제시에서는 2018년 국민안전재단간 실시 중 병원급 의료기관 전 대상을 각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어진 안전점검 민·관합동 기동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분야는 의료법(인력, 시설), 소방, 전기, 가스, 건축분야 등이다.

이번 점검에는 관련 국·도청 복지여성 보건국 보건의료과)에서 순선하여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현장에서의 예외 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행정을 펼쳐서 좋은 귀감이 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초년 노인층 종로당 준공

완주군, 1억2000만원 투입... 전국 최초 초년 노인층 60·70대 위해 건립

완주군이 전국 최초로 초년 노인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 70대를 위한 종로당을 준공했다.

지난 28일 봉동읍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박성일 완주군수, 정성모 완주군의회 의장, 이항자, 이인숙, 류영렬 군의원, 박재완, 강성봉 도의원 등이 참석해 종로당 준공을 축하했다.

봉동읍 보건지소 옆에 위치한 종로당은 군비 1억2000만원이 투입됐으며, 주차장을 포함한 1645㎡대지 위에 83.38㎡ 규모로 건립됐다.

종로당은 앞으로 봉동읍과 완주군의 어르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종로당의 역할을 하게 된다.

민선 6기 2대 핵심정책 중 하나로 '어르신 복지'를 추진하고 완주군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1만9400여명으로 인구비례 20% 이상을 차지하자 연령층에 맞는 복지정책을 추진, 종로당을 준공하게 됐다.

특히 초고령 사회진입에 따라 노년층에서도 초년 노인인 60대부터 고령 노인인 9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분포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같은 노인층



완주군이 전국 최초로 초년 노인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 70대를 위한 종로당을 준공했다.

에 속해 경로당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주로 여가를 보내는 경로당의 기능을 다양하게 보강하고자 초년 노인층인 60대~70대가 주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인 종로당 신축을 추진하게 됐다"며 "다양한 연령대의 여가문화 요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용식 경로회장은 "지역 내 어르신들이 함께할 공간이 없어 안타까웠는데 종로당을 통해 누구나 어울릴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사랑장학생 접수 시작

3월 5일부터 16일까지... 4월중 최종 선발

김제사랑장학생재단(이사장 권한대행 이후천)이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2018년 김제사랑장학생 선발에 나섰다.

재단에서는 지난 28일 장학생 선발계획을 김제시와 김제사랑장학생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아 4월 중 장학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김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김제시민의 자녀로 학업성적이나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대학생이며, 특히 이·통장자녀, 귀농·귀촌인 자녀, 다문화가정자녀, 예·체·기능자, 생활형편이 어렵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 등도 포함시켜 수혜범위를 다양화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지원신청서, 추천서, 성적증명서, 출신학교 졸업증명서 등 필수서류와 기타 첨부서류를 구비해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장학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제사랑장학생재단(☎540-38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고등학생의 경우 연 1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받고, 대학생의 경우 연 200만원에서 최대 연 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받아 학업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후천 이사장 권한대행은 "과감한 장학금, 지평선 학당 운영 및 내고장 학교보내기 격려금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인재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은 제도를 통해 현재 관내 고교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는 등 김제지역의 교육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사랑장학생재단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297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다양한 장학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지평선쌀 추진방향 간담회 개최

지평선쌀 공급·소비확대 방안 마련 등 토론

김제시는 지난 28일 농업기술센터 3층 회의실에서 현재 지평선쌀을 생산하고 있는 5개 RRC(미국종합처리장사)공덕농협, 금산농협, 김제통합, 서지계통합, 이택영농법인)의 지평선쌀 업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평선쌀 추진방향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7년 지평선쌀 추진실적 평가와 2018년 추진계획과 발전방향, 지평선쌀 공급 및 소비확대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김제시는 2018년도에는 1,450ha의 계약재배를 통해 지평선쌀 생산능가에 보급종자(30kg/필지)와 생산장려금(4,000원/포대)을 지원하고 생산RRC에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및 쌀 판매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앞으로 김제시는 지평선쌀 생산 RRC의 여건에 맞는 최적화된 지평선

쌀 계약재배 단지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최상급 원료곡 확보 및 품질관리를 향상토록 유도하고, 앞으로 벼 생산현황 등에 맞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 체계적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상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평선쌀 생산 및 소비확진을 위해 적극 지원을 할 것"이라며 "지평선쌀 생산능가, 생산RRC, 김제시가 서로 도움을 주면서 상생 발전해 나가는 파트너로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토요일 운영

완주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토요일에도 운영한다.

지난 28일 완주군은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돕고 주말에 농기계 임대와 반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상반기(3월~6월)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3월 2일부터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에는 오전 8시에

서 낮 12시까지다. 당초 오전 9시부터 1시간 빠르게 시작하는 것으로 토요일에도 전문 인력이 상주해 임대 및 반납을 돕는다.

현재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를 운영 중으로 농기계는 113종 783대를 보유하고 있다.

기중별로 임대료를 납부하면 최대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대기가 없을 경우

에 한한다.

김중욱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기계사용을 위해 임대 출고시 농기계 안전 사용교육과 초보 농업인들을 위한 농기계조작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대관련 문의는 완주군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 290-3306, 서부 290-3270, 남부 290-3308)로 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박성일 완주군수, 안전관리 시설물 현장점검 나서

박성일 완주군수가 관내 안전관리 시설물 현장점검에 나섰다.

지난 28일 완주군은 지난 5일부터 2018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라 관내 안전관리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박성일 군수가 재해위험 저수지 문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군수는 재해위험이 있는 운지제를 방문해 민관합동점검반 및 담당부서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운지제는 제당 점토 유출 및 여수토 콘크리트 균열로 누수가 발생해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다.

박 군수는 누수 원인 및 보수·보강 대책을 보고 받고, 현장을 둘러보며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조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완주군은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동안 800여개의 안전점검 대상시설에 대해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체점검 및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박 군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점검을 실시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완주군을 만들기가 한다"며 "위험요소 해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